영화와 삶 11차시 수업

영화로 세상 읽기

영화와 역사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화의 관점과 재현 방식

동주 (2016)

이준익 감독



이준익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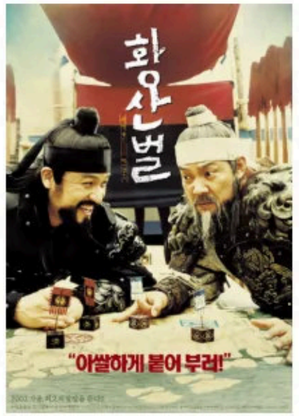


-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대상 3회 수상
  - '왕의 남자', '사도·동주', '자산어보'
- 주요 영화제 최우수 작품상·감독상 다수 석권
  - 대종상, 청룡영화상, 부일영화상 등
- 대한민국 대표 거장 입지 확고
  - 평단과 대중의 폭넓은 인정 획득

데뷔작



키드캡
(1993)
어린이 영화



황산벌
(2003)
해학적으로
표현한
황산벌 전투

천만영화



왕의 남자
(2005)
광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조선



라디오스타
(2006)
잊혀진 가수와
매니저의 우정



사도
(2015)
영조와
사도세자의
비극



자산어보
(2021)
유배지에서
정약전과
청년의 만남

이준익 감독은 역사를 어떻게 영화로 그릴까?



황산벌

역사적 영웅보다 전쟁 속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에 주목



사도

영조와 사도세자의 비극을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으로 표현



왕의 남자

왕이 아닌 광대의 시선으로
조선의 권력과 갈등을 표현



자산어보

흑백 화면과 인물의 관계를 통해
당시 역사를 재현

이준익 감독은
역사적 사건보다
인물의 선택과 갈등에 주목하고,

다양한 시선과 표현 방식으로
역사를 재해석한다

색이 없는 영화, 흑백영화는 무엇이 다를까?



쉰들러리스트(1993)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를
흑백 화면으로 재현하여
역사적 기록을 보는 듯한 분위기를 형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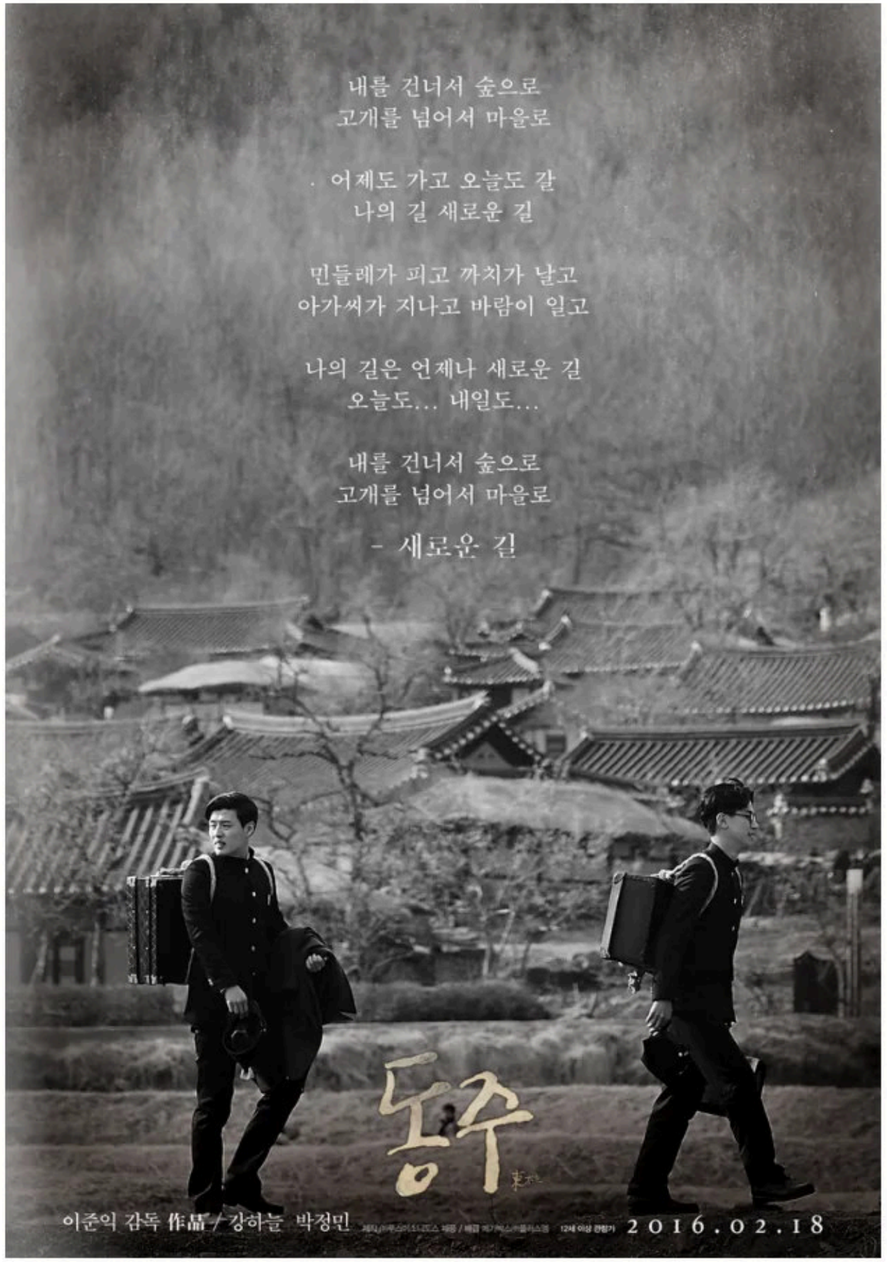
오펜하이머(2023)

컬러와 흑백 화면을 구분하여
컬러는 오펜하이머의 주관적 경험을,
흑백은 다른 인물의 시점에서 바라본 사건을 표현

흑백영화의 특징
색채의 제거
빛과 그림자의 대비
명암과 질감
시대적 분위기

관객에게 주는 효과
인물의 표정과 행동에 집중
긴장감과 인물의 심리를 강조
인물과 공간의 형태를 부각
옛 사진과 역사 기록을 연상

현대의 흑백영화는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감독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표현 방식이다.



동주

2016 · 110분 · 흑백영화

감독 이준익

각본 신연식

출연 강하늘(윤동주), 박정민(송몽규)

일제강점기, 함께 자랐지만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두 청년 윤동주와 송몽규의 이야기

윤동주와 송몽규, 두 사람은 누구인가?

윤동주(1917~1945)

- 시인
- 송몽규의 고종사촌
- 북간도 명동촌 출생
- 연희전문학교 입학, 일본 유학
- 「서시」, 「별 헤는 밤」, 「자화상」 등을 창작
- 1943년 일제 경찰에 체포
- 1945년 오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사망



송몽규 (1917~1945)

- 문인, 독립운동가
- 윤동주의 고종사촌
- 북간도 명동촌 출생
- 193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
- 중국에서 독립운동에 참여
- 연희전문학교 입학, 일본 유학
- 1943년 일제 경찰에 체포
- 1945년 3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사망



고종사촌
어린 시절
함께 성장



연희전문학교
1938년 함께 입학
그리고, 일본 유학



잇따라 체포되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사망

영화「동주」는 어떤 이야기일까?



01. 시인을 꿈꾸는 청년

일제강점기, 함께 성장한 윤동주와 송몽규는 문학을 사랑하며 더 넓은 세상을 꿈꾼다.

그러나 시대의 현실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고민을 하게 된다.



02. 꿈과 현실 사이의 갈등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두 사람. 동주는 시를 쓰며 시대의 아픔을 고민하고,

몽규는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두 사람이 선택한 길의 차이가 점차 드러난다.



03. 체포와 비극적 결말

결국 일제 경찰에 체포된 두 사람은 취조와 투옥을 겪는다.

끝내 광복을 맞지 못하고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다.

영화는 왜 윤동주와 송몽규를 함께 보여줄까?



윤동주

시를 통해 자신의 내면과 시대를 성찰

부끄러움과 양심의 문제를 고민

시를 통해 시대에 대한 저항 의식을 표현

송몽규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행동과 실천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추구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두 청년을 통해,
영화는 저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영화「동주」는 왜 흑백으로 촬영했을까?





영화 제작진이 공개한
동일한 장면의 컬러 사진과 흑백 사진

1. 색채보다 인물의 얼굴과 표정이 두드러짐
2. 빛과 그림자로 분위기와 심리를 강조하는 효과
3.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역사적 분위기를 형성

이준익 감독이 밝힌 흑백 촬영의 두 가지 이유

1. 윤동주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현
   흑백 사진으로 기억하는 윤동주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표현
2. 시대 재현에 필요한 제작비 절감
   일제강점기의 거리, 의상, 소품을 재현하는 비용 부담 완화

영화 「동주」에서는 왜 시가 들릴까?

보이스오버 내레이션

화면 속 대화와 별개로, 장면 위에 인물의 목소리를 덧입히는 표현 방식



1. 인물의 내면 표현

말로 드러내지 못하는 윤동주의 고민과 감정을 시를 통해 전달

2. 장면에 새로운 의미 부여

영화 속 사건과 시의 내용을 연결하여 장면의 의미를 확장

3. 감정과 분위기의 형성

시의 언어와 낭송하는 목소리로 장면의 정서를 강조

영화 속 사례 — 「자화상」



송몽규가 윤동주의 곁을 떠나는 장면에 「자화상」이 낭송된다.

시 속의 '그 사나이'를 송몽규와 연결해 해석하게 하며, 윤동주의 복잡한 감정과 두 사람의 관계를 드러낸다.

영화「동주」는 왜 과거와 현재를 오갈까?



취조받는 동주

체포된 상황에서

시작하는 이야기





과거의 동주와 몽규

두 청년의 성장과 선택을 보여주는 회상



형무소의 동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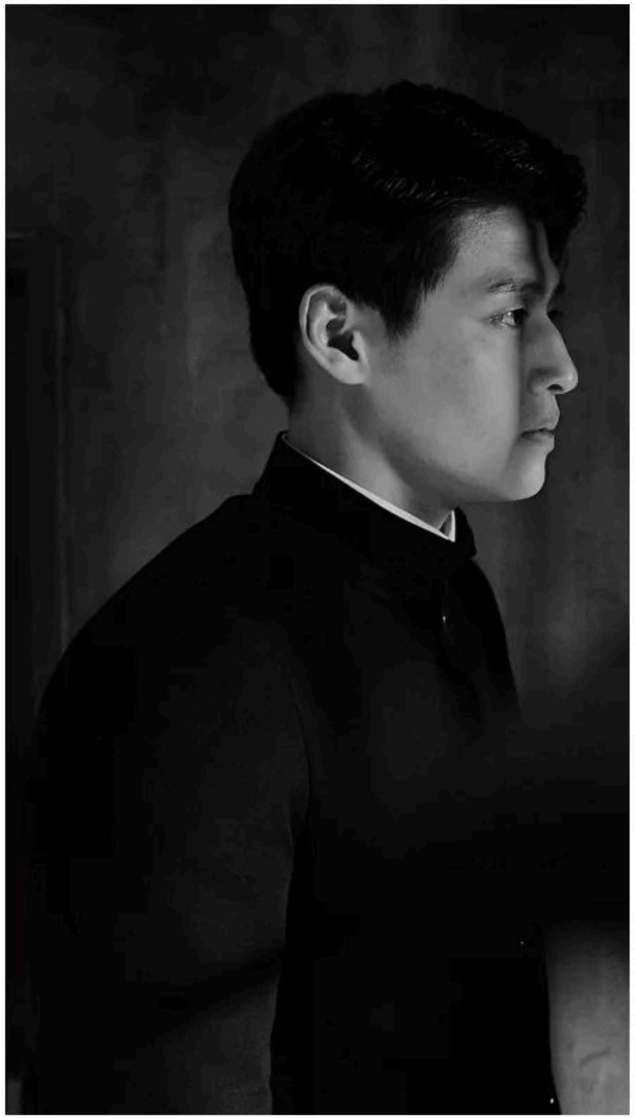
쇠약해져 가는 동주와

안타까운 결말

취조 > 과거의 삶 > 취조 > ... > 과거의 삶 > 취조

시간의 순서를 바꾸어 이야기를 구성하는 비선형 서사와 플래시백

영화는 윤동주를 어떤 인물로 기억하게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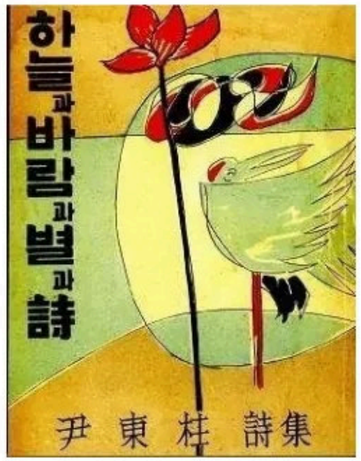
위대한 시인으로 기억되지만, 그 역시 시대의 현실 앞에서 고민하던 한 청년

부끄러움 — 시대의 현실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봄

두려움 — 일제강점기의 억압 속에서 불안과 공포를 느낌

고민 — 시를 쓰는 자신의 삶이 현실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고민

시를 쓰는 것도 저항이 될 수 있을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1948년 사후 출간된 유고시집

우리말을 지키는 일 - 우리말과 글이 억압받던 시대에 한국어로 시를 쓰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함

현실을 성찰하는 일 - 시대의 아픔과 자신의 부끄러움을 시에 담아 스스로를 돌아봄

양심을 지키는 일 -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양심을 잃지 않으려 함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윤동주는 왜 시가 쉽게 씌어진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했을까?

감사합니다


빛나던 미완의 청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동주
東柱
이준익 감독 作品 / 강하늘 박정민 김인우 최홍일 김정석 최희서 신윤주
2016.02.17
12세 이상 관람가